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1.2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중국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제한 결정(1.27)

- EU는 2023년에 시장 상용화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는 혁신(innovation)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관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, 2026년부터는 지식 창출 및 신기술 타당성 연구를 포함한 연구(research) 프로젝트 전반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
- 필라2 CL1·4·5는 전면 제한, CL2·5·6 일부 주제 및 Missions·Widening 등은 중국 기관의 참여가 여전히 허용되나, 그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추가 제한 조치가 적용
- 인공지능, 반도체, 생명공학, 양자기술 등 4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과 외국의 간섭 방지를 위해 추가 제한을 적용

○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성과와 향후 과제(1.26)

- 스타트업·연구·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제3차 유럽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포럼에서 전략의 이행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몇 달간의 우선 과제를 도출
- 유럽 비즈니스 월렛 출범, EIC 예산 3배 확대, 스타트업·스케일업 허브 구축 등 핵심 조치의 성과에 초점, 유럽혁신법·28번째 체제 도입과 스케일업 유럽 펀드*, 혁신투자 협약 및 여성행동계획 등 후속 이니셔티브 추진 예정

* 한편, 집행위는 딥테크 등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‘스케일업 유럽 펀드 운용사’를 2월 말까지 선정, 첫 투자는 올여름 안에 집행 계획

- (기타) ▲다보스포럼, 기초연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소통 강조(1.21) ▲유럽연합 스케일업 펀드 올여름 첫 투자 진행 예정(1.22) ▲EU 이사회 연구팀, 2026년 EU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분야 규명(1.21) ▲도시 공공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·EU 지원 바탕의 혁신역량 강화와 시민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(1.22)